

풍성한 '설 연휴', 스포츠 감동은 계속된다

'황금설 연휴', 스포츠와 함께 더 풍성하게

토티엄 '캡틴' 손흥민, 유로파리그·EPL에서 '골 사냥' 가보지 않는 길 가는 AI페퍼스, 상승세 정관장과 일전 '씨름 괴물'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설날장사 도전

올해도 민족의 명절 설 연휴에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가 팬들을 찾아간다.

먼저 프로배구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여자부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경기가 가장 눈길을 끈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은 연휴 첫날인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흥국생명은 17승 5패, 승점 50으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15승 7패, 승점 47로 그 뒤를 바짝 쫓는다.

'만년 꼴찌'팀에서 창단 첫 '구단 최다승'과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일찌감치 같이 치우며

코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AI페퍼스는 26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는 정관장을 상대로 맞대결을 펼친다.

반환점을 들고 지난 22일부터 4라운드 일정을 시작한 프로농구는 설 연휴에도 치열한 6강 경쟁을 이어간다.

최근 9연승을 질주하는 1위 서울 SK는 25일 7위 부산 KCC를 상대로 10연승 달성에도 도전한다.

명절이면 빼놓을 수 없는 민속씨름은 24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태안 종합체육관에서 위더스 제약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를 연다.



설날장사 탈환에 나선 김민재

지난해 설날대회에서 김민재를 잡았던 최성민(태안군청)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설날 장사에 도전한다.

꽃마를 향한 2002년생 동갑내기 김민재와 최성민의 자존심 경쟁은 설날 연휴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지구 반대편인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들도 뜨겁게 설 연휴를 달굴 준비를 마쳤다.

최근 주춤한 손흥민(토티엄 홉스퍼)은 본격적인 연휴 시작에 앞서서 우리시간으로 24일 오전 2시 45분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호펜하임전에서 골 사냥에 나선다.

또 손흥민은 26일 오후 11시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 대결한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현대건설과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창단 첫 3연승을 장식한 시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

백두급 (140kg 이하)에서는 '씨름 괴물'로 주목받는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2년 만의 설날대회 장사 탈환에 나선다.

김민재는 지난 2024 시즌 장사 6회를 싹쓸이 한 백두급 최강자이지만, 지난해 설날대회는 2위를 했다.



을사년 '빛나는 전남 체육' 더 멀리, 더 높이 솟구쳐라

전남도체육회, 2025 전남선수단 훈련개시식

전남도체육회가 '2025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갖고 전남체육의 새로운 비상을 시작한다.

전남도체육회는 23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전남도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사무국장, 전문체육지도자, 종목별 우수선수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밑거름으로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며 "훈련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훈련 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및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해 전남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승(전남체육회 수구), 조윤경(목포시청 하키)이 선수들을 대표해 선전을 다짐하는 선서를, 김문선 순천대 앙공부 코치와 박형상(여수시청 롤러)이 부패방지 및 (성)폭력 근절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남 대표 선수들은 지난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동계 강화 훈련에 돌입해 을사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전남체육을 빛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개시식에 이어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유공자와 부패방지 청렴문화, 생활체육 유공 등 총 39명의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대한체육회장상 등을 전달했다.

/박희중기자

영암출신 유해란 BBQ 로고 단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하고 2023년 신인왕에 오른 유해란과 후원 계약을 맺고 23일 밝혔다.

유해란은 경기북 상의 칼러에 BBQ 로고를 달고 경기에 나선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현지 BBQ 매장 홍보와 협업 상품 및 공동 프로모션 개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한다. BBQ가 LPGA 투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은 윤이내에 이어 유해란이 두 번째다.

미국 30개 주에 진출한 BBQ는 현지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두 선수의 투어 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BBQ 로고를 상의의 칼러에 부착한 유해란 <세마스포츠마케팅 제공>

2019년 데뷔한 유해란은 지난해와 2023년 한 번씩 우승했고 현재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배드민턴 이승후, 최연소 태극마크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승후가 2025년 장애인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최근 '2025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15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정수(만19세, 한국체대 입학 예정), 이승후(만16세, 전대사대부고 입학 예정)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국가대표', 2024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이정수는 올해도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지난해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신인 선수로 발탁된 이승후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80cm에 달하는 좋은 신체조건으로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승후는 지난해 열린 2025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랭킹 1위이자 2024년 국가대표인 주동재(서울의료원)를 꺾고 단식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승후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지난해 7월 친환경 농약 및 비료 제조 전문 기업인 (주)현농의 장애인체육 선수 지정 후원(이정수, 이승후)을 성사시켰다.

/박희중기자



장애인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 이승후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2월 25일)

전문역원 (062) 673-2427

<p>子</p> <p>많은 사람이 자신의 주위를 맴돈다는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하다.</p> <p>36년생 재물이 소리없이 들어오니 횡재나 마진까지 아니 고무엇이든가. 46년생 비바람이 불어올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 60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을 실천하면 좋은 소식을 접한다. 72년생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벗어나야 편안해진다. 84년생 바빠 움직이면 한 가지라도 얻지만, 기만 있으면 빈손임을 명심하라. 96년생 모든 것을 갖추 후에 길을 나서면 갈다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파란색</p>	<p>丑</p> <p>둔감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한 날이다.</p> <p>49년생 마음의 빛이 있다면 이른 시일내에 가야 편하다. 61년생 앞마당은 높이로 올라가면 보이는 것도 많고 손에 쥐는 것도 다수다. 73년생 넓은 아량으로 여기저기 둘러봐도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 상한다. 85년생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은 좋으나 과도한 것은 좋지 않다. 97년생 어디에 무엇을 맡기는 것이 유리한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점이다. 09년생 생각과 행동이 동일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탄탄하게 올라간다.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황금색</p>	<p>寅</p> <p>막무가내로 덤비다가 내쳐질 수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다가서자.</p> <p>50년생 수수한 모습으로 길을 나서되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다. 62년생 좋은 일에는 방해자가 있으니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74년생 여건은 달라도 바라는 건 같으니 사선이 한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 86년생 중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것이 이득이다. 98년생 보이지 않는 것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다. 10년생 부담스런 인간관계에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시점이 찾아온다.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자주색</p>	<p>卯</p> <p>우직한 모습은 신뢰를 주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p> <p>51년생 물에서 노는 건 좋으나 오늘은 산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좋다. 63년생 짐을 나누어 들고 싶지만 감당하기 어렵다. 75년생 두리뎛 멀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87년생 불필요한 일에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하나 정리하자. 99년생 장삼이나 고무신은 사람이 있다면 맞대응하지 말고 옆으로 돌아서자. 11년생 정해진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파란색</p>
<p>辰</p> <p>아랫사람들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면 심신이 그치지 않고 편안한 하루였다.</p> <p>52년생 슬머시 옆으로 비껴가면 편안하게 자리를 유지한다. 64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길을 가자. 76년생 밖에서 노니는 것을 안으로 들여놓으니 불안정한 모습이 역력하다. 88년생 자기만 판단 착오로 인한 손실은 있으나 생각처럼 크지 않다. 00년생 나지막한 소리에 귀가 풍긋하니 이것은 시기에 불과하니 기다리자. 12년생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지만, 그리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 있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민트색</p>	<p>巳</p> <p>한참을 걸어다가 돌아보는 것은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다.</p> <p>41년생 경쟁하지 말고 상호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53년생 별안간 찾아온 사람을 조심하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65년생 마음이 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불신이 큰 사람은 불안해진다. 77년생 좋은 일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게 하나도 없게 될 날이다. 89년생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을 지금보다 더욱 낮추도록 하라. 어떤생 감정표현이 직선적인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니 조금만 참자.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노란색</p>	<p>午</p> <p>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네 인생살이다.</p> <p>42년생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이 오래도록 남아있으니 답답하다. 54년생 한 번 매우 놀랄 일이 발생하기 쉬우며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자. 66년생 크게 앞서고 작게 물러서는 날이니 욕심을 조금 부리는 것도 좋다. 78년생 사업적인 부분은 혼자서 끝까지 억부족이니 짐을 나누어서 들자. 90년생 어둠이 내린 밤길에서 귀원을 만날 수 있으니 고생한 노릇을 돌리겠다. 02년생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깨우치게끔 도와줘라.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회색</p>	<p>未</p> <p>욕구가 강하면 무리수를 두니 자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p> <p>43년생 주고받는 것이 같으면 무용지물이니 서로 간에 다른 것을 견제자. 55년생 정해진 것을 마다하고 자기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67년생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면 능률도 오르고 공명하기 좋은 하루다. 79년생 행운을 잡는 사람보다 행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자. 91년생 무엇일지 의미하는 지 끊임없이 생각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03년생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행운의 수: 2.5 행운의 색: 초록색</p>
<p>申</p> <p>되는 일이 없고 마음만 심란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편이 더 좋다.</p> <p>44년생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갖을 때이다. 56년생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면 일을 해도 좀처럼 마무리가 쉽게 안 된다. 68년생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어려운 법이다. 80년생 재물보다 인맥이 탄탄해야 든든한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92년생 가슴을 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다. 04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마음에 상처가 더 크게 남기 마련이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빨간색</p>	<p>酉</p> <p>걸어서 갈 길을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은 남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p> <p>45년생 주머니가 가벼우면 실망할 수 있으나 연연할 필요 없다. 57년생 빨리 끝낼 일을 오래도록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답답한 행위다. 69년생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는다. 81년생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면 만나려는 사람들이 호감을 보이고 다가온다. 93년생 성장에 올라서는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으니 부정하지 말자. 05년생 눈앞에 물건이 탐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욕심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행운의 수: 0.6 행운의 색: 보라색</p>	<p>戌</p> <p>가벼운 동정은 버리고 그대로 다가서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다.</p> <p>46년생 들만에 홀로 서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으니 오히려 득이다. 58년생 행동에 기지가 뛰어나니 나서서 인도하는 일이 안성맞춤이다. 70년생 재물이 소리 없이 들어오지만 담아둘 그릇이 하나뿐이라 안타깝다. 82년생 판단과 함부로 대하기나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커다란 손실이다. 94년생 결과기 미진할 때는 계속 진행하지 말고 원인과 원인을 생각해볼 것. 06년생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는 말을 잊지 마라. ※행운의 수: 5.9 행운의 색: 분홍색</p>	<p>亥</p> <p>상장집에 가는 건 주의하고 사소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p> <p>47년생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59년생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니 차이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71년생 외적인 성공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83년생 생마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95년생 인준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익한 모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07년생 슬머시 옆으로 비껴가면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자리를 유지한다. ※행운의 수: 0.2 행운의 색: 흰색</p>